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문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방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나니라
(엢골 3: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장: 조선근

하나님이 주신 기회 1998년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한 해로

오늘 1~5부 예배시 성찬식 거행

새 해가 밝아 벌써 4일째를 맞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년의 기회이다. 총체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또 절망을 느낄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소망이 모자가지 때문이다. 부에 대한 국가적 허위의식이 제거되고, 개인적인 영적 거품들이 씻어지면서 다시금 겸손히 본래의 자리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진실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충현의 방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 한해는 크게 보아 교회 내적으로는 '구구구'를 살피고 전교회와 하나로, 예수님의 몸으로 온전히 묶여지는 해'가 되고, 외적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영적 불모지로 나아가 전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내적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강조된다. 이에 따라 오늘날부터는 예배 전 20분까지 미리 자리를 잡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매주일 2, 3, 4, 5부 예배 전에 특별찬양의 순서를 가진다. 성도들은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선인 시간지킴이 및 준비된 마음가짐을 위해, 그리고 새벽기도와 수요예배, 그리고 금요집회 등 모든 공적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아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심리학과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계속 강조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봉사위원회의에서는 교회안 구구구구를 살피고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아 세우기 위하여 5명위원회를 구구구구 계획을 세워둔 상태이다. 그리고 교회에는 이 구구구구 실제적인 구구구구하도록 하기 위해 가난한 돈보다는 일용할 양식 등의 헌물로 사랑을 전달할 계

획이다. 이에 따라 교회는 가난과 고통으로 낙심한 자들이 기쁨과 평강으로 문을 두드리는 충현교회로 세워질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다.

교구 부흥에 중점

교구와 젊은이의 부흥. 이는 교회의 내적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올 한해 동안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교구위원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충현기도원에서 가지는 교구영성훈련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이 훈련이 진정한 영성훈련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준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협력구역장들을 중심으로하는 남성도 구역모임을 월 1회 실시함으로, 교구 내에서 남성도들의 헌신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젊은이가 살아 있는 교회

'고·대·청'의 내적 부흥과 5부 예배의 활성화는 충현교회의 선교비전 및 교회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당을 가득 채운 예배하는 젊은이들'의 비전을 품고서 전 교역자들과 모든 관련부서들은 한 뜻을 모아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있다. 이들이 바쁜 복음을 들고 참 예배자로 깨닫게 서서 선교의 역군들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21세기를 그 앞에 두고 있는 충현의 큰 기도제목이다.

선교예의 역량 극대화

교회 외적으로 가장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는 '선교'이다. 교회는 올해부터 선교에 더욱 힘을 쏟기 위해 12역의 선교예찬을 책정했다. 이 선교비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소모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선교예의의 준비뿐만 아니라 선교회적인 기도와 헌신, 그리고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참

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1998년 한 해는, 이 모든 심기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충현의 방주를 그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8년도 시무식, 1월 6일에

1998년도 교회 시무식이 이번 월 6일(화) 오전 8시 30분 국제회의실에서 있다. 전교역자와 직원들이 참석하여 예배로 시작할 이번 시무식을 통해서, 교회의 살무를 담당하는 모든 일꾼들이 한국의 현실과 영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바심되어 섬겨갈 수 있도록 성도들도 기도로 동참해야 하겠다.

아멘오케스트라 오늘 출범

한달 이상 준비해온 아멘오케스트라(4부예배)가 드디어 오늘 출범하게 된다. 새로운 단원들로 구성되어 단 기간내에 열심히 준비해온 아멘오케스트라가 오는 아멘찬양대에 맞추어 연주할 곡은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롭다'이다. 이 연주단이 꾸준한 성장을 통하여 올해 충현교회의 큰 목표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계속적인 기도와 관심으로써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새가족환영회 실시

새가족부에서는 오는 1월 11일 오후 2시 30분에 갈릴릴예에서 새가족환영회를 실시한다. 지난 9월 10일 5일부터 오를까지 등록한 새신자들을 초청하여 교회와 구구를 소개하고 환영회 간증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등록한 새신자들과 인도가, 각 교구의 교구장, 구역장, 지역장, 구역장은 모두 참석하기 바란다.

교 박관영 은퇴장으로 교회장

우리 교회의 박관영 은퇴장으로 지난 12월 27일 저녁 지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29일 오전 9시 30분 교육관 앞뜰에서 교회장을 지냈다.

교 박관영 은퇴장은 1983년 11월 제 24대 장로로 장립받은 후 교회내 여러 분야에서 충성 봉사하며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1993년 12월 31일 시무장소를 은퇴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변순복 권사와 아들 박세효와 자부, 두 딸과 두 사위가 있다.

새해 저 갈보리 향해

한 장의 일력이 황혼 속에 저무는 한 해 공포와 죽음과 위기의 다들 속에 짧은 하루 해가 저물기 전 햇살 한 줄을 찾아 기다리는 파수군의 바쁘고도 기도하리라.

1월 1일 위대한 역사의 장이 열리는 순간 희망찬 도시가 비전을 바라보며 은혜를 고백하여 새 날의 도성을 찾아 양지쪽 드막에 찾아오신 주님 맞으리라.

희망의 땀을 뚝뚝 지니며 내뿜는 새해는 넓은 세상 비면 신비의 여명 성도들이 오르면 지구가 잠에서 깨어나는 주님 목숨이다 따뜻한 영혼으로 살리라.

그 날이와 길이와 놀이와 길이를 깨닫는 사랑 영의 눈으로 빛나는 사랑을 품고서 개인의 구원과 민족을 힘입는 98년 위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부어지고 기도하리라.

새해 새해와 밀어오는 이천년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향기를 날리며 하나님과 나의 진리로 살아가는 경건한 믿음의 연속으로 주님을 바라보리라.

신앙을 통해 슬픔과 기쁨이 공전하며 사랑과 평화 용서가 가득한 이 세상 싸움도 미미도 아니하는 사랑 안에 교회의 나라와 세계가 조화를 이루리라.

영광만이 아니라 하늘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주를 수 있는 복된의 사람들로 한은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며 십자가 향해 다시금 예수를 바라보리라.

49년 막한 세월에 흐른 목숨의 탑 눈빛이 맞물린 웃음은 허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간절히 반세기 주를 꿈꾸며 철새인 철새인 남도는 복복과 통일 이루리라.

때론은 지난 시간을 저울질 하건 담담한 현재를 지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죄 마음속에 숨긴 슬픔과 고난은 정육 자신을 배반 죽어 한 평면 살려 버지리라.

단행된 바를 열자 나를 놀이려 싸우는 경쟁 낮은 것은 마음의 나를 낮추는 줄의 몸으로 삼기 희망찬 98년을 향해 하나님께 봉헌된 일원으로 봉사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귀한 목숨이니 모시고 21세기 도약하는 이 세대에 어떻게 열매를 살리는 생명의 밭을 울보로 들으며 목자와 양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개선 하나님 출생한 교회 출생한 목회자들과 성도들 항상 기쁨과 더불어 준비로 기다리는 예수 오직 제형의 그날을 꿈꾸며 살리라.

교회 부흥과 나라 인하여 더불어 사는 지구촌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 기도드리며 대성일이 지나는 21세기 날마다 두고 98년 저 갈보리 향해 전전도 전전지리라.

김은철
(집사, 중등2교 교사)

예배 전 찬양 순서

오늘 2, 3, 4, 5부예배부터 시작

오늘부터 매주 2, 3, 4, 5부예배 시에는 시작전 15분 간 특별찬양의 순서가 있다. 이때마다 2, 5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20분 전부터 미리 와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찬양을 들으며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연주자들은 2부 백금곡 집사(오르간), 3부 김주지 집사(스프라소), 4부 율령정 집사(마미온) 등이며, 다음주에는 강김주 집사(마미온), 이수철 집사(바이올린), 김희정 집사(스프라소) 등이 연주할 예정이다.

한편 5부 예배 전 20분 간은 젊은이 찬양팀이 예배자로 참석하는 모든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예배 전 찬양을 통하여 충현의 모든 애들이 '준비된 예배,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은 성도들은 힘써 동참해야 하겠다.

● 감동인 목사의 이야기서 강해 ●

천국의 풍속 (이사야 11:6-9)

오 늘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1. 천국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6절)

천국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다고 하였습니다.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살진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들에게 끌려 다닙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열드려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7절)

암소와 곰은 원수 중에 원수인데 천국에서는 같이 풀을 뜯어 먹습니다. 또 천국에서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사자는 산 짐승을 잡아서 먹고 죽는 지 오래된 고기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것을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8절)

젖먹이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합니다. 이렇게 하늘 나라에는 서로 상해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모기도 지네도 독사도 우리를 해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할 뿐입니다.

짐승 가운데 가장 잔인한 늑대 이리와 표범입니다. 표범은 나무를 잘 타는 맹수로서 나무에 올라가 가만히 열드려 있다가 먹을 것이 지나가면 무섭게 덮칩니다. 표범은 이렇게 교활하고 무서운 늑대입니다.

사자는 사냥과 무서운 늑대와 곰은 미련하고 잔인한 늑대와 독사는 독하기가 그지없는 늑대인데 이런 동물들이 천국에서는 모두 사랑으로 동행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개인간에 만만치 않고 다투고 다투기만 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툼과 전쟁이 언제까지 끝이 납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야 끝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면 개인이 다투는 법이 없습니다. 나라가 전쟁하는 일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랑으로 동행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신령

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 가운데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가 있습니다. 몸은 세상에 살고 먹기는 술빔에 물을 때어 익힌 화식을 먹고, 마시는는 연탄가스, 자동차 매연이 섞인 공기를 마시면서도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런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변화를 받습니다.

사울이 변화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이고도 좋다고 하던 잔인한 사울을 누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로 변화시켰습니까? 오늘 땅위의 어떤 인간이라도 하늘나라의 임금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만 모신대 개인이 변화하고 가정이 변화하고 교회가 변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간판만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라는 간판이 좋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좇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이 자리잡는 자는 독사보다 악하고 사자보다 사납고 이리보다 잔인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2. 천국에서는 인간의 권리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6절)

어린아이가 사자를 끈다고 하였는데 "사자들"하고 부르던 사자가 어린 아이를 따라 갑니다. 이것은 사람의 권리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잃었습니다. 만물이 인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에 "비야, 오지 마라" 하면 비는 "별 소리를 다 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천지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권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가 없다면 성 프랜시스처럼 새 새들이 날아와서 그의 어깨에 앉고 꿈과 또 사슴이 뛰고 와서 함께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만물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완전히 우리의 권리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칠 것을 바치고 죄악의 유혹은 다 끊어 버리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웃으면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3. 천국은 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임이라"(9절)

물이 바다에 넘치는 것처럼 많다는 말은 인간의 지혜가 상상할 수 없으리 만큼 풍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 백성의 지혜는 물이 바다에 넘칠같이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초등학교도 못나온 무식한 사람도 있고 대학을 나온 학사, 연구과정을 가진 석사, 박사님들이 계시고, 박사 중에서 더욱 훌륭한 박사님이 계시지만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박사도 석사도 무식한 사람도 차이가 없어집니다.

전부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데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나오신 분 중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도 천국에서는 세상의 박사나 천명, 만 명 ... 모두 합친 지혜보다도 천배, 만 배, 더 많은 지혜가 여러분의 머리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물이 바다에 넘치는 것처럼 많아집니다. 바다의 물이 몇 말이나 되며 몇 가지나 되었는지 제어를 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이렇게 되는 날이 오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서든지 둘 중의

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두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년을 살 것같이 '십일조는 한 3년 있다가 바치지, 내년부터 바치지 뭐'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분, 내년부터 3년 후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내년부터 주일을 지키지, 내년부터는 무엇을 하지' 연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에 내가 할 책임만 충실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발을 하루에 세끼를 꼬박 잡수시면서 성경은 단 한 창도 보지 않습니다. 하리튼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칠 것을 바치고 죄악의 유혹은 다 끊어 버리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웃으면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옥물에 가서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기저는 되지 마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넉넉히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물이 바다에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





엘리사의 부름

(역대상 19:19-21)

엘리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와 마찬가지로 말씀에 입한 것 중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엘리야는 공중으로 돌림받은 것으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과 행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매우 중요한 요소를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그의 후계자를 엘리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믿음으로 그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직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아의 부르심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소숙하게 위해서는 엘리아의 행적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이세대를 찾아와서 마지막 시기에 도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죽이고 하나님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대도 그리스도 같이 돌아 오게 하였으며 오랫동안 기다리던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엘리아는 이 모든 일에 승리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에게 전갈이 힘할 할 앞에서 살아남는 데 전장을 내고 한발 선자들에게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는 하나님이시고 그와 그 외에는 이대로 영원 백성의 목사를 붙여오며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보았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는 의의 양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적들과 성공적인 하
 나님의 역사 이후에 엘리야는 아합 왕
 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을 알았습니니다. 진압에 엘리야가
 칼로 죽였던 450명의 반인 신지자 중 하
 나처럼 이제는 엘리야를 죽이려다 지
 었습니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그는 브넬레
 에도 도망하였으나 그의 종들을 남김문제
 하부를 쫓아 쫓아온후 홀로 또났습니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여사로 떠남이
 야 영으로 그의 기양강한 믿음을 생겼
 해 본다면 엘리야의 이러한 낙심은 의
 의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려움
 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닙
 니다. 그의 사명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았고 모든 것이 이제는 안전하고
 든든한 기대로 생각했습니니다. 그러나
 상황이 자신의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자
 그는 당황하게 되었습니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격정에 휩싸였습니
 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야 마의 평안을
 찾을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곤하여 약해졌으며 낙심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로마나루 아래 누워 하나님을 향해 그날의 생명을 대려가기를 구하며 선지자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그에게 두 번 나타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어서 힘을 입고 40일을 종마로 달려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두 번 시험하셨고 이에 대해 엘리야는 자신만이 생명을 보존한 유일한 선지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위협받고 있다고 하면서 낙담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신적 교통과 계시가 있는 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사람에게 기름
 을 부으라는 마지막 명령을 주심에
 한 사람은 나무의 왕이 되며, 또 한 사람
 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사바의 아들 엘리샤였는데, 이
 는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홀라에 가서
 엘리샤를 그의 후계자로 삼게 하시기
 위함이었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일한 가는데 있는 그의 자녀들이며 힘
 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그의 뜻을 이
 루시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
 해 주시는 지 정말 놀랍나니, 하나님
 의 도우심으로,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의 아들 엘리샤를 만나니 그가 열
 두 개 소를 앞세우고 말을 가는데 엘리
 사는 열두 개 소의와 함께 갔는데, 엘리

엘리아는 그의 겉옷을 던진 후 길을 떠났다.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아에게
대답하리라.” 이르되 “청컨대 나로
부모와 입맞춤하소서 하소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20절) 이
사기 수리는 엘리아의 매우 강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부르심에
즉시도 반응하여 행동을 옮겼습니다.
마침 끝난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것
과 같이 밥을 따릅니다. 그는 그의 농지와
그리고 가축들을 내버려 두고 엘리아에
대로 뛰어갔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인 엘리아가 입을 열기도 전에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대해 버렸습니다. 그는
엘리아가 없어서 절망하며 자신을 낫추
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의 요구를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20절)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엘리야의 입에서

엘리아는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단
지 받아들이는 의식을 통해 행했습
니다. 그는 엘리아의 뒤를 쫓는 것이 그
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헌
신은 순수한 마음으로 백성을 위한
것 이상으로 깊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선지자 사역을 위해 자신을 물
든 소를 잡고 기구를 불살라 제사를 드
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그는 이
웃 주위로는 엘리아의 선지자적 위임에
충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비록
순수하게 기억하기를 하나님 자신이 속한 공동
체에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 후
에 엘리아는 엘리아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아멜바흐를 영취하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오직 한 길, 곧 하나님을 향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거침없이, 후회없이 그는 이 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만일에 그가 신실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공개적인 현신을 나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계 수단인 소들과 함께 집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종은 몇 명이나 필요하겠습니까? 그의 강렬한 성품과 용기는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려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길을 잃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대답을 보십시오! "당신의 영미가 갈라졌기 때문에 잊기를 구합니다!"(왕하 2:9). 이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엘리사의 매우 영향력있는 설교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사의 부르심을 모세(출3:9-15),
이사야(사6:1-18), 그리고 예레미야의
부르심(렐1:4-10)과 비교해 보십시오.
다릅니까. 모세와 이사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반면, 엘리사는 부르심
을 기다리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님을 향한 그의 헌신은 깨끗했고, 내어
드림을 실천했습니다.

엘리사는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놀라운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신속한 응답과 행동하는 순종은 든든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빛을 던져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최후순 순회에 있는 때는 얼마나 됩니까? 그분의 고명을 순종하기 위해 다는 모든 것을 내리놓고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호수처럼 거기를 떠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이 세상과 거기에 관한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꼭 저 영원한 하늘의 보물을 붙잡고, 믿을 든든하십니까? 저는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새우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부르심을 일깨우는 메시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사는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놀라운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신속한 응답과 행동하
는 순종은 든든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빛을 던져 줍니다.

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걸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19절).

엘리아가 간 그곳은 하나님의 성
산이었습니다. 그는 낙심한 가운데 하
나님의 산으로 갔었습니다. 하나님
의 곳에서 그는 만나 주셨으며 힘을 부
어 주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종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사막의 아들
엘리아가 있는 곳으로 옮겨 갔으며 그
를 만났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 놀라
운 일입니다. 또한 엘리아를 만나기 위
해 열한 거리의 소나 치가거리를 갔다
왔으며 결국 엘리아는 그의 길옷을 열
두번씩 스를 입고 있던 엘리아 위에 던
졌습니다.

엘리아는 엘리아스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신자적이지 않았습디다. 그는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시심을 받은 사람을 알아 볼 수 있었기에 그의 길은 곧바로 주어진 것임디다. 엘리아는 어떤 사마리아인과 그는 농부였습디다. 마치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목동 다섯과 같은 처지임디다. 사바의 아들로써 엘리아는 세상상 축복인 레위 파리스도 아니었습디다.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택하신 어떤 평범한 사마리아 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사신"(왕하. 58), "신자지"(왕하 9:1)로 불리게 됩디다.

떨어진 것 마디 말로서 매우 도전적입니다. 이것은 돌아가서 무엇이 되었는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함께 가서 동역하자는 말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
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요청에 진정한 헌신보다는 주저하는 기색이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라는 나로 먼저 자기 자신을 작별시키라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눅9:61-62)는 말씀은 때를 잃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엘리사를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아의 도전 앞에 엘리사는 집의
로 돌아가 부모와 작별하는 일을 소
했습다. 오�히려 그는 "돌아가서 호
기리를 취하여 삼과 지구의 기를 먹
다 그리고는 잡다 썩에게 주니 막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아를 좃으며 수
중" 들었습니다(21절). 엘리사는 자신의
의도를 내비치지 않은 채, 대신 자신의
주지하는 마음에 대한 사과를 여의고
섬세하게 다라낸 것입니다. 그는 다
리지도 않았고, 엘리아의 허락이부
고리하지도 않았습다. 행동했을 뿐입

새해에 소망한다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까지

당회 / 서기 김은호 장로

성령 안에서
사랑과 일치와
섬김이 풍성한 교회로



새로운 한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997년은 국가 사회적으로도 큰일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로서도 참으로 중요한 한해였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며 기도해 오던 당회장을 모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당회장을 모신 후 우리 교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강단, 찬양이 살아난 예배와 집회,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 갱신, 젊은이를 위한 예배의 신설, 헌금 바로 하고 바로 쓰기 운동,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의 집중, 기도원과 청년동산의 운영 개선 등, 짧은 시간에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 많은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아직 시작일 뿐임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적인 갱신과 변화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을 합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각 부서의 개인들이 이러한 변화의 대열에 동참하고 발 맞추어 나아갈 때 변화가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갱신과 변화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살리는 일임을 자각하고 보다 힘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는 일들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은 늘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하며 자신을 죽일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실 모두가 깊이 있게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과 일치와 섬김이 풍부하게 있을 때 지속적인 변화를 통한 교회 새우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협력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위원회 / 김재명 장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회복



1998년도도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성도가 없는, 예배 시간을 꼭 지키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접하기만 행하는 것일수록 익숙하게 느끼고, 그에 따라 지만과 안일한 생각, 준비의 소홀, 습관의 반복, 그리고 게으름 등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

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과 만나뵙고 드리는 예배가 유일한 게으름과 준비 소홀로 드러지는 것만을 더 큰 불충한 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자주 이러한 안일하고 게으름에 익숙해진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지만 30%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예배시간에 지각하곤 합니다. 또 예배 중에 잠달을 하거나 졸고 있는 성도, 헌금주머니가 자기 앞에 온 다음에야 지갑을 꺼내는 성도, 어린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성도들도 쉽게 눈이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행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서 잘못을 눈치치는 표정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1997년도에 그릇된 길로 익숙해졌던 잘못된 습관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더욱 아름답게 준비된 예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금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20분 전에 미리 오셔서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시고, 예배 순서 담당자들은 실수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일꾼들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한 마음으로 되어 맡겨 주신 귀한 직분 온전히 감당하도록 더욱 열심히 봉사 충성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성찬식을 여섯 번 시행합니다. 새벽기도회와 젊은이가 드리는 5부예배가 계속 부흥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온 성도들이 정성어린 기도와 열심으로 동참하시어, 충현의 모든 예배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드러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찬양위원회 / 손동운 장로

삶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찬양을 잘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찬양대원들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더불어 꿈에도 소원이란 찬양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찬양 생활을 하시기 원합니다.

근년에 찬양위원회에서는 예배마다 은혜스러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 찬양대원의 영성을 강조하여 회개하고 용서받은 의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찬양대원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 찬양대 45년사를 발간하여 잊혀진 역사를 밝힘으로 충현의 복음적인 보수신앙을 이어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양 지도자로서 육성하는 데 힘쓰며 교육위원회 산하 교회학교 지휘자, 만수자들을 초청하여 영성훈련 및 음악 실기훈련을 연 2회 실시하여 어린 찬양대원들이 체계적인 찬양 교육을 받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주일 2, 3, 4부예배는 시작 15분 전부터 충현의 독창자, 독주자와 찬양대, 또 젊은이들이 드리는 5부예배 전에는 청년1부와 대학부의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성도들께서는 예배 전에 오셔서 함께 찬양에 동참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일 모든 예배의 찬양에 더욱 정성을 쏟으며, 부활절, 부활강사절, 교회 설립 기념주일, 추수감사주일에는 찬양의 방으로, 또 성탄절에는 전 찬양대가 함께 메시아를 찬양하겠습니다. 또 금요집회마다 기구창과 중창 등을 계속 개발해서 찬양을 드릴 때에

온 성도들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바라며 모든 찬양대원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 찬송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 정하우 장로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교육의 중심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 중심에서 멀리 떠난 인간 중심으로 집약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복받기를 원했고, 잘되고 즐거운 것이면 마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난이 닥쳐오니 이찌된 일일까요.

돌이켜 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지 않고 우리 육체를 신의화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는 새로운 복음 교육이 필요한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새해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복음적 교육 내용을 제정립하고 교육 체계를 재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신령한 예배와 복음적 집회가 되도록 교육자를 배치했으며 젊은 지도자 양성을 위해 부지도를 임용하였습니다. 둘째, 복음적 교육 내용이 되도록 교안의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강단의 말씀과 교육 내용의 일체성이 이뤄져 천국일본의 삶에 능동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교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 기도 훈련을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강구할 것입니다. 넷째, 교육자원을 신속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전산화를 완성하고 시청각 교육의 활성을 위한 시설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탁아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순수 탁아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 시간에는 전담 교사를 통한 성경이야기, 성화 관람, 찬송 배수기 등이 진행될 것입니다.

끝으로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위하여 끊임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위원회 / 박영식 장로

전도는
생명운동



경제적 어려움 속에 새해를 맞이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라며 성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에도 주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도위원회의 주제를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성령 운동, 전도 운동'으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첫째, 초에 심도 있는 주제별 강의 내용으로 전도 운동의 방

새해에 소망한다

향미 제시되며 4교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전도위원회 제1차년도 사업으로 전도학교를 개설하고 전 교인 전도사 양육을 목적으로 영혼 훈련과 전도의 실제를 이수케 할 것입니다. 셋째, 전도 대상자(대신자) 찾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17개 교구별 연합회 사역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전도 계획안을 수립, 전도 대상자 발굴을 전 회원이 분담, 연중행사로 열매맺는 운동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넷째, 조직 개편된 17개 교구별 담내전도 연합회 사역으로 전도운동이 전개되며 전도 전략에 따르는 행정 전반을 전도위원회가 총괄 지휘할 것입니다. 다섯째, 전도운동 마감일을 10월 25일로 정하여 전도 운동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 속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생명 운동에 동참하여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바쳐드리시는 1998년 한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선교위원회 / 노광현 장로

영혼을 건지는 열심으로



“일 아니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을 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오직 여호와께는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니 열매는 네 빛으로 열광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야오리라”(사 60:1-3)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시다.

영혼을 건지는 열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가는 우리 중원교회에 98년도 선교위원장을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한인 대상 선교를 지향하고 헌신적인 대성으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원민선교에 집중하고자 케냐, 이집트 선교지에 이어 수단선교지를 탐사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가난한 속에서도 교육으로 고통을 받지만 아니라, 영적으로 갈망한 그들을 향해 복음의 손을 들게 됨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헌신적인 지도자 한 명을 양성하는데 한 달에 \$50-

\$100이던 됩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그들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대로 그냥 있을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98년에는 아프리카권과 아시아권 등 10여개국에 단기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단기선교와는 성격이 달라지며 선교에 헌신되었기에, 그에 준하는 중원의 젊은이들을 선발하고 훈련시켜서 선교자를 정할 하고 단기선교를 통해 선교사를 양성하며, 헌신된 지도자를 할당하여 교회에서 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선교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목적 가운데 두분의 선교지도사를 선발하여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청년, 대학부들이 자율적으로 조성되어 선교지 정탐 또는 단기선교를 준비할 때 교회의 선교방향이 합당하게 여겨지면 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통해 지도자를 양성하여 본국에 역선교자로 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된 유대주를 방대하게 선교하는 것보다는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것이 전략인데 더 효과적이기에 우리 선교위원회에서는 아프리카권을 중심으로 하되, 외국인 근로자 사역인 아시아권을 포함하여 선교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충현의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힘입지 않고는 아무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님들, 우리 하모드 힘을 모아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봉사위원회 / 김방진 장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자



199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령한 말씀을 늘 배우면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이러한 가정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불신양심으로 따뜻하게 보살피 주시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을 돌봐 주는 성도들이 된다면 은혜와 사랑이 넘치나

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해에 불과 가을에 실시했던 교회 주변 대청소를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더러워진 교도복도 조심해 주시고 버릴 것은 휴지통에 버려 주시면 교회 환경이 더욱 깨끗해질 것입니다.

차량관리부에서는 부장 장로님과 검사님들이 매주 일 이른 아침부터 주차 안내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안내원들이 안내하는 대로 주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차량관리부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때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기쁜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획위원회 / 김차생 장로

모든 분야에서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한해



새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해에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급변한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평화와 평강이 넘치는 기쁨의 나날이 되도록 간구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회는 새로운 당회장을 맞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당회장 김성환 목사는 부임 이후 금년말까지 일제 외부의 출입을 앓고 오로지 중원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원을 비롯하여 각 기관 여러 집회에서 모이기관 하면 박수와 복음송으로 흥미위주, 열광주의, 육적감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주야 삼창, 하나님께 박수, 기복신앙 등으로 신앙노선이 위헌 수위까지 간 것을 이제 바른 예배와 바른 헌구생활을 위한 노력과 예배 및 집회에서의 찬송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찬송이에 대한 깊은 연구도 교회에 새로운 기운이 감동되고 있습니다. 이 열기가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복제라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에 새해에는 모두가 큰 기도와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획위원회는 각 부서의 위원장들과 상근국장들로 구성되어서 교회 성장을 위한 중단기 계획 및 정책 연구, 실시 방안 또한 각 부서의 업무 조정 및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처럼 기획위원회는 교회 내의 대소사를 의논하여 당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살펴보는 일을 합니다. 금년에는 교회보다 건강하게 되는 방향으로 모든 초점을 맞추고 교회가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당회장의 목회적 중심을 해라리 그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는 선교와 전도에도 집중합니다. 전 교회적으로 전도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였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나라에 대한 선교 사업이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를 위해 각 교구와 각 교구 전도회와 원시회들이 하였고 젊은이들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의적 복음전도 사업에 많은 예산과 인력관 관심을 집중시키는 일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적으로 국가적 위기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예산을 사용할 때는 가끔적 필요를 살핀 후에 필요불필요한 일을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저출로 낭비를 막고 절약하는 일이 습관화되도록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참모로 유익할 것입니다.

각 개인으로는 바른 영성의 생활이 있어야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됩니다. 예배 및 집회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 개인적인 기도 및 말씀생활, 각 부서

사무국장 / 오진국 장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며 영적으로 일신하는 사무국으로



새로운 한 해를 또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 달 임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온 교회가 복음 안에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면서 하나로 세워져 가는 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구나 이러한 시기에 여러 성실한 직원들과 더불어 사무국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어려 성도님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사무국에서 감당하는 일들은 사무행정 및 제정과 자산에 관한 관리운영의 업무이고, 얼마 전부터는 여기에 기도원과 충현동산 관리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사무국은

교회의 모든 살림을 꾸리기는 살림꾼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자칫 그저 행정, 관리적인 차원에서만 가볍게 다루어지고 생각되지 않지만, 사실은 기도와 순종의 사명감이 없이는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매우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와 전산, 융합과 관리, 재정 등이 하모니를 이루어 담임목사와 여러 구역직남들의 사역을 책임지게 보좌함으로, 예수님의 몸된 중원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뒤에서 겸손히 섬기는 이 일에는 반드시 성실한 기도와 경건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사무국의 전 직원은 더욱 철저하게 성실과 친절한 섬김으로 전 교인들을 대하기 위해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구나, 수개월 전부터 교회적으로 이미 시작된 헌금 바로하고 바로쓰기 운동에 힘을 다해 따르고, 경제제 전동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마음짐이 생각하면서 기도와 더불어 모든 제정과 물자를 절약하고, 바르게 쓰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사무국이 영적으로 일신되어, 중원교회와 온 성도님,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 소망한다

빛 구역에서의 단합된 공동생활 등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달려나가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는 보다 진지하고 성경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교회의 모든 모습을 대하라고 합니다. 각 위원장들이 모였기에 해당 위원회의 유익만을 추구하려는 소아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 이런 생각을 버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 바른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 찬송이 넘치는 교회로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고, 우리 기독교 기본신앙인 주일 성수를 잘 하며 성실로 생활을 철저히 하는 모범된 교회로 지속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결단한 자세로 서로 봉사하고 협력하는 일에 땅과 눈물을 흘리는 일이 끊이지 않도록 피차 기도하며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 하대선 장로

섬기는 행정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뜨겁게 실감하는 감동 속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전하는 참 목회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당회장님의 모습을 지켜 보면서, 행정을 맡은 당회원으로서의 어깨가 그 어느때보다 무거움을 느낍니다.

당회장의 목회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행정 위원회는 언제 어디서나 섬기는 자세로 교회 행정을 펴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점 사업을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모든 교역자님들이 양떼를 위한 목양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본교회당에서는 물론 기도원이나 동산에서나, 성도의 신앙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친절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 교회 행정의 구조 개선과 전신화를 통하여 과거의 낡은 관행에서 탈피하는 동시에, 효율적이며 신

속, 정확한 행정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자원봉사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여 성도들의 잠재적인 봉사 능력을 발굴, 활용함으로써, 물론 교회에 대한 지체로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인건비도 절약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교구위원회 / 강은원 장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대로 삼는 삶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잠은 줄로 여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이 어찌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인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빌 3:13, 14)

해마다 새해가 될 때면 언제나 영동한 꾀대를 찾아서 그것을 잡아 보고자 생각하면서 고생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는 어떠한 정황 하에든 꾀대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일조일설에 그 꾀대를 향하여 달리는 일이 성취되지 못하는 때는 크게 실망하고 심지어는 타락의 자리로 여지없이 떨어지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성도들이 받아야 할 상급은 부활, 영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하여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대로 삼는 삶을 살면서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쉬지 말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1998년도 새해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일에 주력해야 되었고, 또한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에 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복음 안에서 보다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797 구역에 785명의 구역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임명된 구역장 집사님들은 한 명도 낙오됨 없이 사명에 충실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을 소개합니다.

어느 아버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기를 명하셨습니다. 큰아들은 결손치 대담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당장에 불명해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섭섭하고 노여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포도

원에 나가보니 있어야 할 말 아들은 없고 생각지 않던 둘째가 땅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말아들은 말로는 순종했으나 행위로서는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아버지 앞에서는 솔직히 일하기가 싫어서 거역하였으나 생각해보니 포도원의 일을 버려둘 수 없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사나들은 둘째아들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98년도에 교구위원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불성실한 게으른 종들이었음을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교구위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둘째아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금년에도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를 위하여 부득이드립니다.

기도제목 ① 구역장교육에 전진 참석할 수 있도록, ② 5월 5일 개척된 충현을림회를 위하여.

재정위원회 / 최대원 장로

가물을 대비한 요셉의 지혜와 비전을 배우는 한해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신 것과 새해에도 이러한 경제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늘 마땅히 넘치게 기원합니다. IMF 한파로 말미암아 온갖 크고 작은 경제가 풍풍 울려 거울난 시련 가운데 더 예민한 것 같습니다. 환율 폭등으로 야기되는 고통으로 인해 원금통부와 장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짐을 느끼면서도 그나마 기본적인 외직주는 아직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이 내리신 지상명령(선교, 구제, 전도)을 본 교회가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 재원이 여러 사업과 부서에 적절히 안배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회 교회에는 매년 예산을 10%씩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서 늘 믿음으로 넘치는 물질을 지원해 주셨고, 천국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셨기에 어렵지 않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을 특별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나라와 가정살림이 예년 같지 않게 어려웠던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 살을 갇아 내야 하는 고통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백성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인 저희들도 이러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정위원회는 꼭 필요한 선교 및 전도 사업, 그리고 각 부서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였으며, 대청예산인 소요되는 중, 장기 사업은 사업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긴급요인을 평형하였습니다. 늘 부족한 예산을 배정하고 발로 뛰더라도 한 해서 각 지체들에게는 미만한 마음뿐입니다. 특히 어려운 때임을 감안하시어 사랑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는 배정된 예산을 모두 써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도 남기 두려운다는 자세로 예산을 집행할 것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사업과 행사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반드시 계고하시어 예수님이 보시기에 ‘불평요하다’라고 하실 만한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행거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목표가 선교, 구제, 전도임을 명심하시어 이러한 목표에 비추어는 예산 집행은 없는지를 늘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주변에 소외되고 있던 교우들도 많을 것이 때문에 이러한 이웃을 위한 여러도 소홀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나라 경제를 돌아보면서 요즘 애매 울리 요새이가 처한 비전과 지혜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육국장 · 비서실장 / 이종국 장로

주님을 향한 역동적인 1998년을 소망하면서



1998년을 소망 가운데 출발케 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지난 해는 참으로 우울하고 어두운 시간들이었지만, 종헌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조망된 참으로 복된 해였다고 하신합니다. 나태했던 믿음과 가려졌던 복음이 담임목사님의 일사각오의 뜨거운 설교와 열정인 찬송과 기도소 성게 되어 어려움도 극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기를 머금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듭난 주님의 백성이 되려는 열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고 있는 뜨거운 열정으로 오대양육대주를 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때에 교육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선사백여명의 교회학교 교사와 구천여명의 교회학교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행정적 미흡의 역할을 직원들과 함께 우리의 꾀대신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성실하고 겸손하게 감당하려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지시때때로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증거하실 교역자와 교사들을 위한 충성된 도우미가 되도록 교육국 직원들과 같이 더욱 불발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회장님의 메시지가 교회학교 각부의 심령들에게 온전히 증거되고 전하여지도록 최선을 다한 교사님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이를 위하여 항상 중보기도하여 주시는 헌현의 권속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마음들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로목사님과 당회장님과의 대화를 열망하시는 성도님들의 간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으며, 사전에 의논하여 시복을 헌현을 하겠다겠습니다. 바라옵기는 두 분 목사님께서 복음 증거 사역에 전념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8년이 나라와 교회와 온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역동적인 소망의 한해가 되기를 바라고, 끊임없는 기도와 애정인 지도편달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 소망하다

에 7년간의 풍년 뒤에 7년간의 기근이 올 것 이라고 예
견하고 있었음은 재앙을 대비해야 한다고 소린한 사
이 별로 많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수
나 축적망청하듯 다가오는 위기에 대처하지 않았습
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
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회 재정지원회는 IMF가
처방한 쓴 약을 먹고 한국 경제가 타 시 도약하기를
기원하고 믿는 마음으로 교회 재정을 알뜰히 운영하
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과 동참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 / 박승준 장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건축위원회 / 우기전 장로

교회 주변에
어린이공원 조성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주요사업 중 하나는 교회 주변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 건축위원회에서는 교회 동편 장만주자장 부지와 서편의 주택부지보에 놓은 상태이며, 이곳에 어떤 문제를 관계당국과 협의하는 중에 따르면 급급 삼강기부터는 공사

☞ 선교지에서온 편지 / 수리남 ☞

씨 뿌린 후 싹 나고 자라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이 아니고는

8월부터 시작된 건기로 인한 무더위
가 모두의 마음과 몸을 지치게 만들었
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서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단비를 갈급
하듯 성령의 단비를 갈급하도록 기도하
게 하심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으로 더욱 가물어가기는 수리
남을 볼 때마다 기러기 뿌리 놓고 쫓아 나
오 오자리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집에 있는
배를 옥수수 수를 뿌렸듯이 조그마하
라고는 생각이 멈추어 버렸고 그 때에
조그마게 먹지도 못할 옥수수가 달라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바로 수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함께 더욱 배를 갈아주고 비료를 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달라
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자라면서 단기간이라
도 이곳에 오셔서 죽어자 가는 수리님
의 영혼들을 함께 품고 기도하기를 원
합니다.

도니(Dony)의 가족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현지인교회나 인도인교회나 모두 천주교 영향권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파의 인도인교회를 시찰할 때부터 시내와 인근인 마을 중간에 있는 렐리도루프(Leli-dorp)라는 곳에 있는 마파와 그의 형제 자매 등 모두 4명을 마파에 데리고 가고 오며 예배

아. 모든 행사가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 가족은 이곳에 살지만 다른 어머니의 친척 석구장은 모두 마마에 살고 있는 인턴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여름 성경학교 때 예수님을 가르쳐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마와 종교하고 어울리기는 본래로 천주교하고 가야 하므로 천주교의 경전을 받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돈이와 그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영접했음만 천주교에 가지 말고 교회에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 간다고 합니다. 또한 마마와 그의 친척들에게도 교회 고개까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다님으로 그 가족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는 수천명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각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신약 목록 외우기대회

교회에 안나오던 사람들까지 참석
해 모두 17명이 암송.

여름성경학교

현지인교회는 9월 2-4일, 마따교회는 9월 24-26일 각각 3일씩 실시.

방학중에는

이곳의 기독교 역사는 250년이 넘으면서도 잘못된 신앙 습관으로 인해 신앙을 다 팔아 버리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수리남의 방학은

마따에서 성경공부 시작

그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에 마파를 방문하여 진료와 심방, 치료를 해 주었는데 지난 10월 9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마파에 가서 심방하고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약 7.8명 정도가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인디언들이 말씀을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있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파에서 출발한 펄라 헤지키적인이라 온전에 어려움이 많습니니다. 가문도 없는 2차선도로라 많은 사고가 나기에 특별히 기도부탁드립니다.

현지인교회 성찬식

약 13명이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마따 마을 잔치

인디언들은 매년 밭을 만들어 농사를 짓기에 밭을 준비하면서 좋은 장소와 풍성한 결실을 위해 모서리 잔치를 하는데 잔치는 토요일 새벽에 시작하여 주일 오후까지 계속됩니다. 주일성수를 위해 잔치가 없기를 기도하였고 몇 년의 연거 끝에 실시하였는데 적은 수가 참석하고 고인들은 대부분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

마를 시작해 가

수리남 소식

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2교육관 증축에 관한 사업이 주요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일전(90년 6월 2일자 사업추진)에 보고되었던 바와 같이 현재 제2교육관 위치는 거점용지역인 관례로 2층짜리만 건축이 허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변여건이 상당한 변화를 겪으면서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 도시기획 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아마도 빠른 시일 안에는 제2교육관을 5층으로 증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와같이 1998년도 한해 동안 건국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대' 및 '교육공간의 효과적인 확대'라는 성도님들께서 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심으로 어린이 공원을 매개로 하여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과 영적으로 만나고, 제2교육관 증축을 통하여 더욱 효과적인 교회학교 교육이 진행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한인교회 소식

그동안 공석중이던 한인교회는 본
합측의 장상철 목사님이 오셔서 시무하
시다가 선교사훈련 받으러 나가셨는데
12월초쯤 명성교회로부터 파송을 받
다시 오실 예정입니다.

가족소식

큰 딸 소영이가 고3인데 12월 6일 한국의 수능시험과 같은 SAT가 있습니다.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부모인 저희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기가 대학을 선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부를 하도록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전공도, 학과도 하나도 안의도가 꼭 8학공입니다.

여각방법

북미나 남미에서 편지나 2kg미만 소포를 마이애미의 영어학교의 사서 으로 보내시면 2주에 한 번씩 저희에 전달됩니다.

Rev. SEOK RYEOL, AHN
P.O. Box 025567 America
cooperative School
SURINAME MIAMI, FL, 33102-55
USA

또 E-Mail(한글도 가능함)
ahnseok@sr.net

교회소식

알림

1. 성찬식 / 오늘 I, II, III, IV, V부에서 있습니다.
2. 공동의회 / 오늘 찬양예배 후 있습니다. · 안건: 97년도 결산 및 98년도 예산안 채용의 건
3. 예배 전 찬양 / 오늘부터 II, III, IV, V부예배 15분 전에 예배 전 찬양이 있습니다.

모임

1. 장로 화요새벽기도회 / 6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감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선교관 404호
3. 남녀전도부 월례회 / 오늘 15:00, 칼빈홀(다교구 연합회장,

부회장

4. 안수집사회 월요새벽기도회 / 5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5. 권사회 제1차 월례회 / 11일(다음 주일) 1부예배 후, 사랑부실

남녀전도회

1. 베드로 1 / 11일(다음 주일) 18:30, 양한원 집사택(부부동반)
2. 베드로13 / 오늘 17:00, 박명근 집사택(부부동반)
3. 마리아14 / 6일(화) 10:00, 유인영 집사택(679-9683)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1	윤여정	1	마리아		9	정희원	5	청년2부	정아(15)	17	김세준	17	청년2부	
2	이보성	2	청년1부	최수자(2)	10	김양희	6	청년2부	이범무(6)	18	김진숙	17	청년2부	
3	이경희	2	청년1부	최수자(2)	11	이달수	7	바울		19	김유진	17	한나	
4	고광현	2	베드로		12	김태정	11	대학부	김영숙(11)	20	김태연	19	대학부	
5	최영희	2	루디아		13	이승현	15	청년1부	백승현(5)	21	이소영	19	청년1부	
6	신선희	3	청년2부		14	김은자	15	루디아	이갑재(15)	22	이형찬	19	청년1부	
7	김일중	4	베드로	손숙자(4)	15	송종섭	15	청년2부						
8	박정애	5	청년2부	이지은(5)	16	김창진	15	청년2부						

※총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정전도회 속회 총회

각지의 교도소 방문 전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정전도회(회장 김영수 장로)가 오늘(1월 4일) 오후 3시 갈릴릴에서 속회 총회를 연다. 기도로 후원하거나 직접 전도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회원들은 교정전도회의 98년도를 새로이 준비하기 위한 속회 총회에 꼭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

춘천소년원 수련회 교사 모임

교정전도회에서는 오늘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5일 동안 춘천소년원(신촌중학교)에서 겨울수련회를 실시한다. '종신인 하나님'이란 주제와 야고보서 3장 17,18절 말씀으로 정현민 목사와 말씀을 전하고, 간증, 반별 찬양, 세례식 등이 계획되어 있다.

교정전도회에서는 이번 수련회를 위하여 40명의 교사를 모집한다. 24세~50세의 성도들 가운데 교사로 봉사한

경험이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원생들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요망된다.

영아부, 성탄잔치

영아부에서는 지난 12월 18일(소망반, 믿음반), 12월 25일(사랑반, 충성반)에 '예수님 생일잔치'를 열었다. 처음 갖는 행사라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생생한 영아와 아베, 아기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새삼 알았다.

다음 성탄절 행사 때는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과 함께 이 기쁜 행사를 나누기를 기도하였다. 이날 한영준 전도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이 좋은 집에서, 호화로운 호텔에 태어나지 않고 가장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 나서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하여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말씀하셨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많은 아베들이 참석하여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한층 더 느끼게 하였다.

사진 찍으세요

아직까지 사진을 찍지 않았던 제직, 98년도 신임 내리 서리집사에서는 서둘러 사진을 찍으셔서 '제직사진첩' 만드는 일을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촬영은 1월7일까지 합니다.

◆찍는 곳

홍보실(선교관 408호)

◆찍는 때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30분

금주의 기도 제목

.....

- ① 새해를 맞아 깨끗한 신앙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
- ② 젊은이들이 드리는 주일 5부 예배에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예배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 ③ 각 기관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여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④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20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 ⑤ 김창진 목사님의 사역을 지켜주시며, 건강을 주셔서 감당케 하소서.
- ⑥ 김성관 목사님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속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양떼들을 잘 돌보게 하소서.
- ⑦ 이 민족의 어려움을 붙들어 주셔서 위정자들과 각급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소서.
- ⑧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북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통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굶주림에 빠져 있는 북한인들을 보살피어 주소서.
- ⑨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소서.
- ⑩ 안석필 선교사(수리남). 마타 안 단원 사역에 필요한 교회 건축과 인프라 건축을 위하여, 수리남 한인교회와 영적으로 하나되어 이민 사회에서 신앙생활은 교회가 되도록,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하여

■원로목사

김창진

■위임목사

김창진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조준재 이종대 현상민
박정현 김동희 한근구 이종민 김필수
정영준 이국영 김재철 이종수 정갑진
정현민 조문환 조필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협동목사

윤영락 박형용

■선교사

안석필 안석필 김영태

■간사

김도산 김도환 박도철

■원로전도사

이두란

■여전도사

최순복 정연희 현정남 정복민 장영하
임태주 김경자 배옥인 최지혜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순 한영준 박복희 박희자 김영숙
김복순 최영만

■교육전도사

박기인 염현일 한승일 이종관 김영기
송현진 김장중 조재민 최진우 최용구

■선교전도사

정성기 정은희

■평신도선교사

유병태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청년 1부 명동 총동원 전도

청년1부(지도 김필수 목사, 부장 이갑재 장로)에서는 12월 23일 7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 명동 대한종합금융 앞에서 성탄절 총동원 전도를 실시하였다. 청년 1부 회원과 교사 140여명이 참여하여 찬양과 음력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선포하였다. '예수를 믿어 생전이라'는 청년 1부 포어를 플래카드로 준비하여 행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한편, 1200여 명의 죄를 준비하여 주와 생인과 행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였다.

청년들이 찬양과 음력으로 주님의 나심을 축하할 때 지나가던 행진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캐럴송을 함께 찬양하기도 하였다.

찬양과 말씀을 선포하는 도중, 자신 냄비에서 모금하던 구세군 사관들이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함께 하였으며 일본인 사각지자들이 청년들의 찬양과 전도를 취재하기도 하였다.

청년 1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이 총동원 전도는 매년 12월 24일에 실시되었지만, 금년에는 수요일에 드리기 위하여 하루 전인 23일에 실시한 것이다.